배춧값 하락에…올 김장 예상 비용 30만~36만원

전통시장 30만6000원·대형마트 35만6300원…전년보다 소폭 하락
배추 가격 20% 하락에도 무·고춧가루 등 재료 상승에 비용 차이 없어

올해 김장철을 맞아 배추 가격이 전년보다 20% 넘게 하락했지만 무와 대파, 고춧가루, 소금, 생강 등 다른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장비용이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16일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6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5만6300원이 들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물가정보는 4인 가족이 먹을 김장 재료인 배추 20포기와 무 10개, 총각무 3단 등 총 11개 농수산물 가격을 조사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은 31만원, 마트는 35만776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비용은 전년보다 시장 1.3%, 마트 0.4% 각각 내렸다.

이달 중순 기준 배추 1포기당 가격은 4000원, 무는 개당 2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통시장 김장 재료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 20포기 가격은 8만원으로, 전년(11만원)보다 27.3%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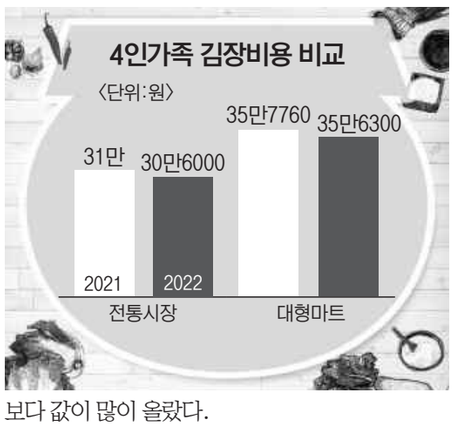
같은 기간 마트 배추 가격은 11만9800원에서 9만1800원으로 23.4% 내렸다.

채소류 중 배추는 여름까지만 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며 '금배추'로 불렸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이 좋아져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이외 쪽파 2단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40% 내린 1만2000원(대형마트 1만1980원)으로 조사됐다.

배추와 쪽파를 뺀 나머지 재료는 잦은 강우와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같았다.

특히 무와 대파는 가을철 생육 부진으로 지난해



보다 값이 많이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무 10개 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1만5000원)보다 33.3%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도 1만59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37.1% 올랐다.

대파 2단 가격도 전통시장에서 20.0%, 마트에서 25.0% 오르면서 가격이 각각 6000원, 7600원을 나타냈다.

고춧가루(태양초) 3kg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10만원에 팔리는데, 전년(8만원)보다 25.0% 오른 가격이다.

대형마트 가격은 11만5200원으로, 전년(10만800원)보다 14.3% 인상됐다.

생강 800g 값은 전통시장에서 66.7% 오른 1만원에 거래됐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5040원에서 9580원으로, 무려 90.1% 급등했다.

소금(천일염) 5kg값은 시장 1만3000원·마트 2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0.0%·25.3% 올랐다.

멸치액젓 1kg 가격은 시장에서 20.0% 오른 6000원, 마트에서 47.3% 오른 6600원에 거래됐다.

소금 가격 상승은 수년째 반복하는 장마와 태풍 여파로 염전 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소금값 영향을 받는 멸치액젓도 가격이 덩달아 올랐지만, 새우젓용 생새우는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 변동이 없었다.

김장 속 재료로 사용하는 미나리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 1단에 1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7%(1000원) 내렸다.

김장 별미를 책임지는 굴 가격(1kg)도 전통시장에서 16.7%(-5000원) 내린 2만5000원에 거래됐다. 굴은 불볕더위에 의한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집단 폐사가 일어나거나, 양식 굴 성장이 더뎌 상품성을 갖춘 굴이 적어 생산량이 적었으나,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초가을부터 초겨울인 제철을 맞아 알도 굵고 맛도 좋아 인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정보는 다만,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마늘과 고추, 소금 등의 비축 물량을 풀면서 김장 물가 하락을 도왔다고 분석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연구원은 "최근 품질이 좋은 고랭지 작물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며 "11월까지는 고랭지 배추로, 12월 이후에는 남쪽 지역 배추로 김장하는 것이 올겨울 지혜로운 김장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김장 적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역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동해안은 12월 상순~중순, 남해안은 12월 하순~1월 상순으로 전망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할인이 쏟아진다… 수능에 지친 수험생들에 '수험표 할인'

초밥·홀리데이 호텔 뷔페 반값
제주항공 국내선 20% 할인 등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를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판촉전이 활발하다.

제주항공은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동반 1인)에게 국내선 항공권을 20% 할인해준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이 같은 할인 행사를 해마다 마련하고 있다.

수험생 특별 할인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18일(성수기 제외)까지 국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 할인 항공권 예매는 오는 12월15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jejuair.net)와 모바일앱,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에 가입한 뒤 예약과정에서 '신분 할인'을 선택한 뒤 탑승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수험생활인'과 '동반자 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탑승 당일 제주항공 창구에서 2023학년도 대입 지원서(수시포함), 원서 접수증, 수험표 중 1개를 제시해야 한다.

광주·전남 등에서 44개 매장을 운영하는 상무초밥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험표를 가져오면 초밥 제품을 반값 할인 판매한다.

수험생 1인 1인분에 한정하며 포장과 배달 주문은 제외한다.

롯데마트 직원들이 수능 수험생들의 비타민 충전을 위해 마련한 '긴장하지 망고', '끝까지 정신 체리', '중요한 건 자신 감', '정답이 구운' 등 간식 기획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수험표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뷔페를 50% 할인해주는 '수고했5'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할인은 응시자 본인에 한해 제공된다.

홈플러스 일부 가전매장은 2023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삼성 휴대폰 구매 때 멤버십 포인트를 더 적립해주거나 키보드와 스마트워치 일부 상품을 1만원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는 17~30일 매장에서 모바일 가입을 하는 2002~2004년 출생 수험생(선착순 4000명)에게 올리브영 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거치대를 나눠준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는 수험생을 포함한 1999년~2008년생 고객이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럭키 드로 참여를 신청한 뒤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티셔츠 등 다양한 경품을 준다.

IPTV(인터넷TV) 서비스 U+tv는 그간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이달 17, 18일 이틀간 모든 주문형 비디오(VOD) 구매 시 사용 가능한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티앤씨 '리젠', 친환경 골프웨어 시장 진출

'고스피어' 다운·자켓 제품 적용
바지·원피스 등 아이템 확대 계획

효성티앤씨의 국내 친환경 섬유 대표 브랜드 '리젠'(regen)이 골프웨어 시장에 진출했다.

효성티앤씨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 '리젠'과 리사이클 나일론 '마이판 리젠'(MIPAN regen)이 골프웨어 브랜드 '고스피어'(GOSPHERES)의 의류제품〈사진〉에 적용됐다고 4일 밝혔다.

고스피어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골프웨어 브랜드다. 자연에서 하는 스포츠인 골프에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브랜드 출시 때부터 효성티앤씨의 리젠을 적용해 왔다.

국내 친환경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효성티앤씨는 이번 고스피어와의 협업으로 최근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골프패션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친환경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을겨울 시즌에는 리젠이 고스피어의 다운과 자켓 제품에 적용됐다.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필드에서 엣지있는 스윙을 하고 싶어하는 골퍼들 사이에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들은 최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오픈한 고스피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토어에서는 리젠의 제조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조형물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효성과 고스피어는 올해 자켓, 다운, 티셔츠, 모자 등 다양한 의류 제작에 함께했으며 2023년에

협업을 확대해 바지, 원피스 등 리젠 적용 아이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는 "리젠의 골프패션 진출로 스포츠업계에 친환경 트렌드를 이끌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친환경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